

김삿갓 시에 투영된 시대상과 시적 지향의식

박영주*

<차 례>

1. 접근의 시각
2. 민초들의 애환과 동화의 정서
3. 봉건 권위주의와 이화의 태도
4. 새로운 시대의식과 그 시적 형상
5. 김삿갓 시의 문학사적 의의와 위상

<국문초록>

본고는 김삿갓 시세계가 지닌 특징과 의의를 작품에 투영된 시대상과 시적 지향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것이다. 김삿갓의 삶은 개인적 모순에서 사회적 모순으로 전이된 면이 강하며, 그가 남긴 시편들은 당대 봉건 권위주의에 맞서 고착화된 관념이나 가치를 깨뜨리면서, 전혀 새로운 시적 형상을 통해 새로운 관념과 가치의식을 창출한 데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김삿갓은 19세기 중엽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애환을 사실적인 수법을 통해 진솔하게 노래했다. 또 당대 사회현실에서 제기되는 불합리와 부조리를 특유의 언어감각을 동반한 파격의 형식과 희작성의 내용을 결합하여 신랄하게 노래했다. 이와 함께 그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당대 변화하는 시대현실에서 대두된 풍정과 세태 및 가치의식을 즉생활적 제재와 형상들을 통해 노래했다. 그는 파격적인 발상을 통해 당대를 살아가면서 그가 생각하고 느낀 바를 보다 자유롭게 표출함으로써, 종래의 시적 정서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였다. 그런 면에서 김삿갓은 단순히 한시 형식만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기존

* 강릉원주대학교

의 관념과 가치 및 삶의 형식까지를 깨뜨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삿갓의 시편들은 더없이 인간적이고 사실적이며 진솔하다. 이는 그가 역사 격동기의 생활시인으로서, 경험적 진실성이 우러나는 작품들을 통해 그만의 독특한 시세계를 일구어 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시화 대상에 대한 동화 혹은 이화의 정서와 태도를 통해 삶의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시대의식에 입각하여 당대의 인간풍정을 노래한 시인이었다. 그의 시편들이 당대 이후 계층을 초월하여 인구에 회자된 데에는, 이와 같은 시적 지향의식이 이른바 ‘김삿갓 시’로 일컬을 수 있는 그만의 특유한 개성을 창출한 데 있다. 김삿갓 시의 문학사적 의의와 위상은 이와 같은 개성과 시적 지향의식을 통해 중세적 사유방식과 가치의식의 틀로부터 벗어나 근대를 예비하는 새로운 시적 형상을 창출한 데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핵심어 : 김삿갓, 시대상, 시적 지향의식, 파격성, 희작성, 동화, 이화, 인간풍정

1. 접근의 시각

김삿갓으로 통칭되어 온 난고 김병연(蘭阜 金炳淵 · 1807~1863)의 시편들이 그가 생존·활동하던 당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구에 회자되어 온 이유는 무엇보다도 엄격한 형식과 규범을 중시하는 한시의 형식을 파괴한 데 있다. 나아가 이러한 파격의 형식 위에 풍자와 해학을 바탕으로 한 언어유희에 노골적인 육담까지를 서슴지 않은 희작성(戲作性)의 내용을 결합함으로써, 그만의 특유한 시세계를 창출한 데 있다.

이와 같은 김삿갓 시세계의 특징이자 개성은 그의 시편들에 관심을 갖게 된 1930년대 이래 전국 각처에 산재해 있던 작품 수집 작업과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되어 왔다. 아울러 그의 문학세계를 기리고 예술혼

을 추모하는 「김삿갓문화제」(강원도 영월)가 1998년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문학사적 의의와 위상을 규명하는 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김삿갓의 시세계에 결부된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파격의 형식이나 희작성의 내용 자체에만 주목하여 그 특징적 단면을 논의하거나, 평생을 떠돌며 방랑시인으로 살았던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과 결부시킨 흥미 위주의 접근이 적지 않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김삿갓 시가 지닌 특징을 형식·내용·문학사적 위치를 아우른 종합적 국면의 논의¹⁾, 작품에 담긴 표현상의 특질과 미의식을 살핀 논의²⁾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일본 작가 마쓰오 바쇼[松尾芭蕉]의 시세계와 비교 연구³⁾, 중국 고전시를 대표하는 시인들과의 비교 연구⁴⁾처럼 국외 시인들과의 대비로 시야를 넓힌 논의가 이루어진 점은 주목을 요한다.

김삿갓 시의 김삿갓 시다운 면모는 예의 파격의 형식 위에 희작성의 내용을 결합한 특유의 시세계를 창출한 데 있다. 따라서 오늘의 시점에서 요청되는 김삿갓 시세계가 지닌 특징과 개성에 결부된 논의는, 그가 작시(作詩) 행위를 통해 표출하고자 했던 현존재⁵⁾의 삶과 가치의식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작품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의 시각을 다지는 일이다.

본고는 김삿갓이 평생을 두고 지은 작품들 대부분이 당대 삶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사람살이의 애환, 봉건 권위주의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내재

-
- 1) 대표적으로 정대규, 「김삿갓 시 연구」(숭실대 박사학위논문, 1989)를 들 수 있다.
 - 2) 대표적으로 이건호, 「김병연 시 연구」(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4); 하정승, 「김삿갓 시에 나타난 悲慨와 飄逸의 정신」(『동방한문학』 32집, 동방한문학회, 2007)을 들 수 있다.
 - 3) 김인숙, 「韓日文學의 比較研究 : 金笠과 松尾芭蕉의 詩世界를 중심으로」, 『강원대 학교논문집』 제25집, 1992; 광미정, 「芭蕉와 金笠의 비교 연구」,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2003.
 - 4) 고연근, 「金笠과 中國 古典詩歌의 關聯研究」,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3.
 - 5) 여기에서 현존재(現存在)란 자기를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주체적 존재자를 이르는 말로서, 사물이나 도구 따위의 존재와는 달리, 원래 자유로운 실존으로서 세계 안에서 존재함을 이른다.

된 폐단과 횡포, 당대의 통속적 관념이나 가치의식 파괴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식을 형상화한 데 있음을 예의주시하여, 이를 작품에 투영된 시대상과 시적 지향의식의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김삿갓 시편들에서 주목되는 이와 같은 면모는 그가 생존·활동하던 19세기 중엽의 삶과 가치의식에 결부된 인간풍정(人間風情)으로도 함축할 수 있겠는데, 본고는 이러한 인간풍정을 특유의 파격과 언어감각으로 형상화한 시편들에 투영된 시대상과 시적 지향의식의 시각에서 살피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이를 근거로 김삿갓 시세계가 지닌 문학사적 의의와 위상을 규명·재정립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한편, 김삿갓이라는 인물과 그의 시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된 193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집·고증 과정을 거쳐 그의 시로 판명된 작품은 현재 380여 수에 이른다.⁶⁾ 본고에서 주목하는 시편들은 여기에서 과체시(科體詩) 129수를 제외한 250여 수 가운데 120여 수로서, 논의 대상 작품 수의 절반에 육박한다. 나머지 절반의 경우는 작자 자신의 개인적 심회를 노래하거나, 사물 혹은 풍경 자체를 노래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⁷⁾ 작품의 성향을 구획하는 것이 상대적

6)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김삿갓의 시를 본격적으로 수집하여 엮은 『金笠詩集』(이응수·1939년 초판/1941년 대중보판) 수록 348수 가운데 科體詩 129수와 김삿갓의 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3수를 제외한 216수, 『풍자시인 김삿갓』(이응수·1956년)에 수록된 14수, 그리고 후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가로 수집·고증된 21수를 합한 251수가 김삿갓의 시 세계를 조명할 수 있는 본격 연구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이건호, 「김병연 시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4, 11면 참조.) 그러나 김삿갓의 시는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발견될 가능성이 다분한 터라, 작품의 전모에 대한 논의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당시 상황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7) 김삿갓의 科體詩 129수를 제외한 작품 전체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기존논의로는, 박혜숙의 「金笠研究」(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4, 30면)와 정대구의 『김삿갓 연구』(문학아카데미, 1990, 149면)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박혜숙은 김삿갓의 시 작품을 248수로 파악한 상태에서 詠物 65수, 詠景 49수, 詠懷 33수, 詠俗 101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정대구는 이러한 박혜숙의 견해를 수용하는 가운데, 다만 詠俗 101수를 다시 하위분류하여 詠人 53수와 詠俗 48수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 말하는 120여 수는, 이러한 기존논의에서 詠人·詠俗으로 분류된 100여 수와, 詠物로 분류된 작품들(65수) 가운데 당대 사람살이와 결부된 풍물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인 분류인 데다 복합적 성향을 지닌 작품 또한 적지 않지만, 김삿갓 시세계가 지닌 특징이자 개성적 면모를 규명하는 데 있어 본고에서 문제삼는 시편들은 대표성을 지니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2. 민초들의 애환과 동화의 정서

김삿갓이라는 인물이 이른바 궁벽한 시골에 사는 이들조차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널리 회자된 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당대 민초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애환에 공감하며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 있다. 그렇기에 김삿갓의 시편들 가운데에는 행운유수(行雲流水)와도 같이 삼천리 강토를 유랑하면서 그가 직접 겪은 당대 하층민들의 고달픈 생활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동일시하면서 하층민들의 삶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작품들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경향의 작품들에는, 김삿갓 자신의 불우한 처지도 처지지만, 민생고에 시달리는 민초들의 삶의 양태와 애환이 절절히 배어 있다. 아니 오히려 그 자신 그렇듯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던 영락 사대부 계층의 한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민초들의 애환을 동화(同化)의 정서로 포착·형상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몇 예를 통해 그 특징적 면모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貧吟>

盤中無肉權歸菜
廚中乏薪禍及籬
婦姑食時同器食
出門父子易衣行

<가난>

밥상에는 고기가 없어 채소만 판을 치고
부엌에는 땀감이 없어 울타리가 화를 입네.
며느리와 시어머니 한 그릇에서 밥을 먹고
부자 간 나갈 때에는 옷을 바꿔 입는다네.

있는 20여 수를 합한 숫자이다.

〈無題〉	〈무제〉
四脚松盤粥一器	개다리 소반에 멀건 죽 한 그릇.
天光雲影共徘徊	하늘 빛 구름 그림자가 떠도는구나.
主人莫道無顏色	주인이여 면목없다 말하지 마오.
吾愛青山倒水來	물 속에 비친 청산을 내 좋아한다오.

〈가난〉은 당대 민초들이 꾸려가던 삶의 단면이자 보편적인 모습을 여실히 그려낸 작품이다. 밥상에서는 고기 구경한지 껍도 오래여서 그저 먹느니 푸성귀일 따름이다. 그나마도 끊일려면 땀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 여의치 않아 마침내 울타리까지 뜯어 땀감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다. 거기에 고부 간에 겨우 한 그릇 밥을 나누어 먹는 처지이고, 출입복이 없어 문밖에 나갈 양이면 부자 간에 단벌옷을 바꿔 입어야 할 만큼 사정이 열악하다. 말 그대로 ‘혈벗고 굶주린’ 형상 그 자체다. 하지만 작자는 이 모든 정황을 ‘채소가 판을 치고’·‘울타리가 화를 입으며’·‘부자 간에 옷을 바꿔 입는다’는 표현들을 통해, 민초들의 삶을 ‘찌든’ 모습 혹은 ‘절은’ 형상으로 그려내기보다는, 웃지 못할 그러나 웃지 않을 수도 없는 가벼운 해학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눈앞의 정황을 담담하게 수용하게 만드는 재치를 발휘한다.

〈무제〉는 작자 자신의 생애를 대변하는 떠돌이 생활의 단면을 던지시 드러내는 가운데, ‘멀건 죽 한 그릇’만을 대접할 수밖에 없는 궁핍한 농민의 생활상과, 그러면서도 순후하기 짝이 없는 인정을 애뜻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그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겨우 ‘멀건 죽 한 그릇’이어서 면목 없어 하는 주인을 위로하며, ‘물 속에 비친 청산을 내 좋아한다오.’라는 말을 건네는 작자의 재치와 질박한 심성에서, 서로의 곤궁함을 훌쩍 뛰어넘는 여유와 웃음이 잔잔하게 번지게 한다.

민란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19세기 중엽 조선 민초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오랜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지역 간 부세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고, 수령권을 중심으로 부세수탈이 가중되었다. 거기에 일부 계층의 대토지 소유는 농촌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가

는 사회적 모순을 낳았다.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 1762~1836)이 지적한 바 당시 호남의 경우 전체 농가에서 지주가 5%, 자작농이 25%인데 비해 소작농이 무려 70%나 되었던 사실⁸⁾이 이를 잘 말해준다. 재정 형편이 나빠지자 지방관청에서는 각종 잡세의 부과나 환곡, 고리대 등의 이식행위를 통해 재정부족을 보충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 농민수탈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백성들의 삶은 피폐 상태에서 헤어날 수 없었으므로, 기저 농민층이 몰락하여 유리결식하는 신세로 전락하는 예가 허다했던 것이다.

김삿갓이 그려낸 당대 민초들의 삶과 생활의 단면들은, 위에서 예로 든 4구의 절구형식보다는 8구의 읍시형식을 취한 작품들에서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역시 대표적인 예만을 들어 그 특징적 면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逢雨宿村家>

曲木爲椽簷着塵
其間如斗僅容身
平生不欲長腰屈
此夜難謀一脚伸
鼠穴煙通渾似漆
蓬窓茅隔亦無晨
雖然免得衣冠濕
臨別慙懃謝主人

<비를 만나 시골집에서 자다>

굽은 나무로 서까래 만들고 처마엔 먼지가 쌓였는데
그 방 칸이라니 한 말들이 크기라 겨우 몸을 들였네.
평생 동안 긴 허리를 굽히려 하지 않았건만
이 밤에는 다리 하나조차 펴기가 어렵구나.
쥐구멍으로 연기가 들어와 옷칠한 듯 검어진 데다
봉창엔 띠풀이 엉겨 날 밝는 것도 몰랐네.
그래도 하룻밤 의관 젖는 걸 면했으니
떠나면서 은근히 주인에게 고마워했네.

<宿農家>

終日緣溪不見人
幸尋斗屋半江濱
門塗女媧元年紙
房掃天皇甲子塵
光黑器皿虞陶出
色紅麥飯漢倉陳

<농가에서 자다>

종일토록 계곡을 따라가도 사람 만나지 못하다가
다행히도 자그마한 오두막집을 강가에서 찾았네.
문을 바른 종이는 여와시절 그대라고
방을 쓸었더니 천황씨 갑자년 먼지일세.
거무튀튀한 그릇들은 순임금이 구워냈고
불그레한 보리밥은 한나라 창고에서 묵은 것일세.

8)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한국사 특강』, 서울대출판부, 1997, 203면 참조.

平明謝主登前途 날이 밝아 주인에게 고마워하고 길을 나섰지만
若思經宵口味辛 지난 밤 겪은 일 생각하면 입맛이 씹쓸하구나.

위의 <비를 만나 시골집에서 자다>와 <농가에서 자다>는 그 시적 소재나 형상화 양상이 유사하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낡고 퇴락한 데다 퀴퀴하기까지 한 농가에서의 유숙을 제재로, 궁벽하기 짝이 없는 살림살이와 간난신고의 민생을 그린 작품들이다. ‘굽은 나무로 만든 서까래’·‘먼지가 켜켜이 쌓인 처마’·‘한 말들이 되를 연상시키는 방’·‘쥐구멍으로 연기가 들어와 검은 옷칠을 한 듯 그을은 방안 벽’·‘띠풀 우거져 아침이 와도 어두컴컴한 봉창’ 등등은 거의 귀신이 나올 듯한 형국이자 분위기다. 이는 당대 민초들이 실제로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생생히 보여준다.

그런데 이처럼 열악하다 못해 처참한 형국이자 분위기를 그리면서도, 작자는 ‘평생 동안 긴 허리를 굽히지 않으려고 했건만 다리 하나 펴기 어렵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영락한 선비이기는 해도 기개 만큼은 살아 있음을 넉넉히 비춘다. 그리고 ‘문을 바른 종이는 여와시절 그대로 것’·‘방안의 먼지는 천황씨 갑자년의 것’·‘거무튀튀한 그릇들은 순임금이 구워낸 것’·‘불그레한 보리밥은 한나라 창고에서 묵은 것’ 등과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태고적’을 곧바로 연상시키는 개성적 비유들로부터 잔잔한 웃음이 배어나게도 한다. 더욱이 이처럼 흑독한 밤을 보내고서 아침을 맞았을 때, ‘씹쓸한 입맛’을 다실망정 ‘그래도 하룻밤 의관 젖는 걸 면해 준’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두 작품 모두에서 빼놓지 않고 있는바, 생활이나 형편이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 마음 만큼은 그렇지 않은 민초들의 인정을 눈물겨운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의식주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자 목전의 절실한 사안이다. 그런데 그 어느 국면 하나 전혀 여유롭지 못한 당대 민초들의 생활상은 궁핍을 넘어서서 참담하기조차 하다. 봉건사회에서의 가난은 사회제도의 책임이지 개인의 책임이기 어렵다. 19세기 중엽의

각박한 사회현실 속에서 피폐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애환을 그려낸 김삿갓의 시편들은 삶의 부조리와 불평등이 빚어낸 비참함을 보여준다. 동가식 서가숙의 방랑생활을 통해 민초들을 슬하게 접한 김삿갓은 어떤 수식이나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사실적(寫實的)으로 그려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편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무겁고 침통한 분위기보다는 재치와 해학을 통해 짐짓 가벼운 웃음을 머금게 하는 분위기로 승화시키는 점이 돋보인다. 물론 다사로운 정이 담담하게 배어나는 웃음 뒤끝에 씩씩레함이 여운처럼 남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씩씩레함이 현실적 간난의 산물이라면 웃음은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씩씩레함과 웃음을 복합적으로 내포하면서 당대 민초들의 애환을 동화의 정서로 포착·형상화한 시적 지향의식은 누구도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김삿갓 시의 특징이자 개성의 일면이라 할 것이다. 그의 시편들이 초동급부(樵童汲婦)들에게조차 회자되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동화의 정서에 기반한 시화 대상과의 교감에 말미암는 바 크다고 하겠다.

3. 봉건 권위주의와 이화의 태도

김삿갓의 시편들이 계층을 초월하여 회자된 데에는, 당대 시대현실에서 제기되는 불합리와 부조리를 특유의 언어감각을 동반한 파격의 형식과 희작성의 내용을 결합하여 통렬하게 노래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간과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향을 지닌 시편들 가운데서도, 종래 완강하던 틀이 조금씩 와해되어 가기 시작한 봉건 권위주의에 맞서 기존의 고착화된 관념을 파괴하거나, 지배계층이 자행하는 폐단과 횡포를 신랄하게 노래한 작품들에서 김삿갓 시 특유의 개성과 시적 지향의식의 또 다른 단면을 여

실히 확인할 수 있다.

김삿갓이 생존·활동하던 19세기 중엽의 조선사회는 농업·상업·수공업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쳐 서서히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태동하면서 봉건적 질서가 해체되어 가던 시기였다. 민(民)의 각성에 의한 민중기질의 고양, 상품화폐경제 발달에 힘입은 상업자본의 형성,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대세에 말미암은 신분질서의 동요가 사회경제적 국면의 두드러진 시대상이라 할 수 있다.

김삿갓은 이러한 봉건적 질서 해체기의 시대상 가운데서도 특히 기존의 권위주의에 이화(異化)의 태도로 맞서 그 세태와 풍정(風情)을 형상화한다. 이화(異化)는 동화(同化)의 반대 국면에서 추구하는 시적 지향의식이다. 그의 이러한 시적 지향의식은 우선 기존의 관념이나 가치를 깨뜨리며 전혀 새로운 시적 형상을 창출하는 데서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기를 하겠다.

〈雪中寒梅〉	〈눈 속에 핀 매화〉
雪中寒梅酒傷妓	눈 속에 핀 매화 술에 상한 기녀 같고
風前嬌柳誦經僧	바람 앞 버들가지 경을 외는 중 같구나.
栗花落花龍尾短	밤꽃 떨어지니 삼살개 잘룩한 꼬리 같고
榴花初生鼠耳凸	석류꽃 갓 피어나니 쥐의 뽕족한 귀 같구나.

사군자(四君子)의 하나로서 사대부 사회에서 대대로 지조와 절의의 표상으로 기려왔던 눈 속의 매화를 ‘술에 상한 기녀’로 노래하고 있다. 또, 바람에 하늘거리는 버들을 춘흥도 여인도 아닌 ‘경을 외는 중’으로 노래하고 있다. 전통적 권위로 일컬을 수 있는 형상적 이미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며 전혀 색다른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떨어진 밤꽃을 ‘삼살개 잘룩한 꼬리’라고 한다거나, 갓 피어난 석류꽃을 ‘쥐의 뽕족한 귀’라고 한 데서는, 비유의 참신성과 더불어 생생한 형상을 동반한 즉생활적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범속한 일상에 존재하는 사물의 사실적 이미지에 충실한 지향의식의 단면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김삿갓의 기존 권위주의에 맞서는 이화의 태도는 당대 사회 현실의 면면들을 풍자적으로 노래한 시편들에서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虛言詩> 靑山影裡鹿抱卵 白雲江邊蟹打尾 夕陽歸僧髻三尺 樓上織女閨一斗	<허언시> 푸른 산 그림자 안에선 사슴이 알을 품었고 흰 구름 지나는 강변에선 게가 꼬리를 치는구나. 석양에 돌아가는 중의 상투가 석 자나 되고 베틀에서 베 짜는 계집의 불알이 한 말이라네.
---	--

사슴이 알을 품고, 게가 꼬리를 치며, 중이 상투를 틀고, 계집에게 불알이 있을 수 없다. 이는 허망하고 거짓된 인간의 모습이자 세태의 단면을 헛된 말장난[虛言]으로 묘사함으로써, 당대 사회현실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풍자하고 있다.

이 작품은 그 시적 대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모순으로 가득찬 당대 사회현실을 조롱과 비판의 어조에 실어 풍자함으로써, 기존의 권위를 파괴시키고 가치를 전복시킨다. 이러한 권위 파괴와 가치 전복은 부조리한 시대상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자,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의 면면들을 개선하거나 바로잡을 힘이래곤 없는 시인이 시대현실에 맞서 휘두를 수 있는 붓의 칼날인 셈이다.

특히 김삿갓이 기존의 권위주의에 이화의 태도로 맞서 그 정태를 형상화한 시편들 가운데에는, 당대 봉건적 질서의 동요와 궤를 같이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했던 신분제적 질서,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폐단 및 횡포를 노래한 작품들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元生員> 日出猿生原	<원생원> 해뜨니 원숭이가 언덕에 나타나고
----------------	----------------------------

猫過鼠盡死 고양이 지나가니 쥐가 몰살을 당하네.
 黃昏蚊簷至 황혼이 되자 모기가 처마에 이르고
 夜出蚤席射 밤 되어 나온 벼룩이 자리에서 쏘아대네.

<盡日垂頭客> <진종일 머리 조아리는 양반>
 唐鞋崇襪數斤綿 비싼 가죽신에 솜버선 겹으로 껴 신고
 踏盡清霜赴暮煙 서리 밟고 집 나서면 저물 때나 돌아오네.
 淺綠周衣長曳地 연두색 두루마기 땅을 쓸 듯 치렁치렁
 眞紅唐扇半遮天 진홍 부채 반만 펴도 하늘마저 가리겠네.
 詩讀一卷能言律 한 권의 책을 겨우 읽고 시율을 떠벌리고
 材盡千金尙用錢 천만금을 다 쓰고도 돈 쓸 곳만 찾는구나.
 朱門盡日垂頭客 권문세가 찾아가서 하루 종일 굶실굶실
 若對鄉人意氣全 고향사람 만날 양이면 그 기세 대단하네.

위의 <원생원>은 김삿갓이 어느 지방에서 원생원·서진사·문첨지·조석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과 헤어지면서 지은 시라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마치 동물과 곤충들을 등장시킨 우화같지만,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양반들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즉, 원생원(猿生原→元生員), 서진사(鼠盡死→徐進士), 문첨지(蚊簷至→文僉知), 조석사(蚤席射→趙碩士)로 읽어야 하므로, 네 양반을 각기 원숭이·쥐·모기·벼룩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해뜰 때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번갈아가면서 날뛰는 모습을 각각의 호칭 속에 동시에 담음으로써,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악덕하고 파렴치한 그들의 폐해와 횡포를 신랄하게 조롱·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진종일 머리 조아리는 양반>의 경우는, 넉넉한 재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서 ‘천금’을 주고 산 벼슬로 양반행세를 하는 양태와 함께, 날이면 날마다 권문세가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매관 매직할 궁리에 하루 해를 다 보내면서도, 어찌다 고향사람이라도 만날 양이면 그 의기양양하는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꼴불견 족속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당대 신분제의 동요와 함께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는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그리면서,

어쭙잖은 행색과 행태에 깃든 양반의 허위의식을 풍자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봉건 권위주의에 맞서는 김삿갓의 대사회적 태도는 어느 시인보다도 치열하며 신랄하다. 그 치열함과 신랄함을 형상화함에 있어서, 김삿갓은 <진종일 머리 조아리는 양반>의 경우처럼 종래의 한시 규범을 지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생원>에서처럼 규범의 구속성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형상화한다. 한시의 격식 또한 일종의 권위일 수 있는 까닭에 이를 허물어뜨린다. 이러한 파격은 기존의 규범과 질서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보다 충실하게 노래할 수 있다는 자각과 의지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통해 새로운 시형을 모색하고 장르를 창출한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김삿갓 역시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보다 절실하게 노래하기 위해 이렇듯 독특한 파격의 시편들을 창출해 낸 것일 터다.

시적 대상에 대한 동화의 정서가 해학을 낳는다면, 이화의 태도는 풍자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풍자는 비판의 일종이며 그 대상은 대부분 사회적 강자다. 19세기 중엽 봉건 권위주의에 이화의 태도로 맞서, 당대 시대 현실에서 제기되는 불합리와 부조리에 내재된 폐단과 횡포를, 특유의 언어감각을 동반한 파격의 형식과 희작성의 내용을 결합하여 형상화한 이와 같은 김삿갓의 시적 지향의식 또한 김삿갓 시의 특징이자 개성의 일면이라 할 것이다.

4. 새로운 시대의식과 그 시적 형상

김삿갓의 시편들에 등장하는 소재는 참으로 다양하다. 전통시대 사대부 한시 작품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예들이 적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김삿갓 시편들의 소재적 다양성은 이를 시화(詩化)하는 데 수반되는 정서

의 다양성으로 인해 매우 다채로운 시적 형상을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의 시편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제기된 문제들을 시대의식에 입각하여 노래하면서, 그 시적 형상을 다채로운 이미지를 통해 창출한 작품들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면모 역시 김삿갓 시 특유의 개성과 시적 지향의식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이후 우리 시가사는 요컨대 ‘정감의 자유로운 발로야말로 시의 본질’이라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면서, 그와 같은 정감을 제대로 드러내자면 종래의 관습화된 미의식이나 규범적 형상들로부터 벗어나, 인간 본연의 거친 감정들까지를 진솔하게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식과 논리가 본격적으로 부상한다. 교산 허균(蛟山 許筠·1569~1618)의 ‘상하의 정이 통하는 시’⁹⁾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는데, 그는 그러자면 시가 어떤 도덕적 관념이나 가치 혹은 사물의 이치를 따져 노래하는 것이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사물에 닿아 가슴 속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감흥-정감을 진솔하게 노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했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19세기 중엽 김삿갓 당대에 이르러서도 몇몇 사대부에 국한되었을뿐,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지는 못했다. 특히 애정시의 경우 대대로 시인으로 자부하는 이들 치고 한두 작품 짓지 않은 경우란 드문데, 엄숙과 품위를 숭상하던 성리학적 사유와 정서가 여전히 완강하던 시대였던 터라, 예컨대 인간 본연의 욕망을 당당하게 긍정하면서 그 정감의 세계를 진솔하게 표출하는 데까지 이른 경우는 드물다.

김삿갓의 시편들 가운데에는 남녀 간의 애정 혹은 본능적인 욕망을 농

9) “옛날에는 글로써 상하의 정을 통하였고 그 도를 실어 전하였던 까닭에, 명백 정대하고 곡진 친절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그 가리키고 뜻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였으니, 이것이 글의 효용이다.”(古者 文以通上下之情 以載其道而傳 故明白正大 諄切丁寧 使聞者曉然知其指意 此文之用也 : 「文說」, 『惺所覆瓿藁』 卷12 文部9)

10)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박영주, 「허균 시에 투영된 사유와 정서의 특질」, 『고시가연구』 1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185~186면을 참조.

염하고도 거침없이 드러내는 경향의 작품들이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경향의 시편들은 당대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유가적 엄숙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관념적 허위의식을 과감하게 벗어던진 인간 성정의 자유로운 발로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아가 김삿갓 시편들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정감의 자유로운 표출 속에는, 애정 혹은 성에 대한 건강한 정서를 토대로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시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지향의식이 투영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그 특징적 면모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暗夜訪紅蓮> 探香狂蝶半夜行 百花深處摠無情 欲採紅蓮南浦去 洞庭秋波小舟驚	<어두운 밤에 홍련을 찾아가다> 향기 찾는 미친 나비 한밤중에 나섰지만 온갖 꽃들 밤이 깊어 모두가 무정하네. 홍련을 캐려고 남포로 내려가니 동정호 가을 물결에 작은 배가 놀라네.
---	--

<佳人> 抱向東窓弄未休 半含嬌態半含羞 低聲暗問相思否 手整金釵小點頭	<아름다운 여인> 껴안고 동창이 밝아오도록 쉽 없이 즐긴 밤 그 모습 교태롭다 할까 수줍다 할까. 사랑이 아직도 미진하냐고 나직이 물었더니 금비녀 매만지며 머리를 끄덕이네.
--	--

위의 <어두운 밤에 홍련을 찾아가다>에는 광접(狂蝶)·홍련(紅蓮)·남포(南浦)·추파(秋波)·소주(小舟) 등의 소재가 등장한다. 그런데 이들 소재 모두는 남녀 간의 애정에 결부된 것으로서, 성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은유들이다.

우선, 한밤중에 ‘향기’를 찾아나선 ‘미친 나비’는 욕망에 불타는 사내며, ‘백화’는 수많은 여인들을 은유한다. 시각이 시각이니 만큼 한밤중에 그를 반길 꽃들이란 쉽지가 않아 모두들 ‘무정’할 건 당연하다. 그가 찾는 꽃은 특히 ‘홍련-붉게 핀 연꽃’인데, 이는 여인이면서, 여인의 이름이면서, 여성상징일 수 있는 복합적이며 선정적인 은유가 아닐 수 없다. 하여 그 ‘홍

련'을 캐려고 남포로 내려간다고 했으니, '캐는' 행위와 '남포-따뜻한 남쪽 포구'로 내려가는 행위란 다름아닌 진진한 애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자 '동정호의 가을물결'에 '소주-작은 배'가 놀란다고 했으니, 물결의 출렁임에 놀라는 '소주'는 곧 여성상징임을 어렵지 않게 헤아릴 수 있다. 아님밤중에 '향기'를 찾아 나서 '홍련'을 캐려 하는 '미친 나비'의 행태에 난데없이 '남포'며 '동정호 물결'에다 '작은 배'가 등장할 이유가 달리 있을 수 없으니 말이다. 요컨대 한밤중에 찾아 나선 곱게 핀 붉은 '홍련'은 곧 아름다운 여인이자 선정적인 애정행위의 은유인 것이다.

<아름다운 여인>의 경우는, 동창이 밝아오도록 밤새껏 서로 안고 즐긴 남녀 한 쌍, 그들에겐 동짓달 지나긴 밤일지라도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을 성싶다.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는 듯한 여인의 표정을 읽었는지, 형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는 여인에게 '아직도 미진하냐'고 나직이 속삭이는 사내의 말에, 수줍은 듯 교태로운 표정으로 다만 '머리를 끄덕이는' 여인의 모습에서, 제목의 <佳人>을 방불히 떠올릴 수 있다. 음흉스러운 듯 절로 은근한 미소를 짓게 하는 작품이다.

이와 같은 예가 아니더라도, 널리 알려진 바 김삿갓의 시편들에는 거침 없는 육담들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이러한 면모 역시 그의 시세계가 지닌 특징이자 개성의 일면임에 틀림없다. 고아한 기풍과 엄숙한 분위기를 주조로 하는 전래의 한시 풍토에, 이같은 김삿갓의 시편들이 적잖은 파문과 동시에 생동감 또한 불어넣었을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김삿갓 시편들의 소재적 다양성과 이를 시화하는 데 수반되는 정서의 다양성은, 특히 19세기 중엽 조선의 변화하는 시대현실 속에서 새롭게 제기된 사회적 문제를 노래한 작품들에서 두드러진다. 역시 대표적인 예만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艱貧>

地上有仙仙見富
人間無罪罪有貧

<괴로운 가난>

지상에 신선 있으니 부자가 곧 신선일세.
사람에겐 죄가 없으니 가난이 죄일세.

莫道貧富別有種 가난뱅이와 부자가 따로 있다고 말하지 말게나.
 貧者還富富還貧 가난뱅이도 부자되고 부자도 가난해진다오.

<錢> 周遊天下皆歡迎 興國興家勢不輕 去復還來來復去 生能死捨死能生 苟求壯士終無力 善用愚夫必有名 富恐失之貧願得 幾人白髮此中成	<돈>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되 어디에서나 환영받으니 나라와 가문 흥성케 하여 그 세력이 대단하네. 갔다가도 다시 오고 왔다가는 다시 가니 산 사람 능히 죽이고 죽을 사람 능히 살리네. 제아무리 장사라도 이게 없으면 종내 힘을 못 쓰며 잘만 쓰면 바보라도 반드시 이름을 얻는다네. 부자는 잃을까 저어하고 빈자는 얻기를 원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속에서 늙어가나.
---	--

위의 <괴로운 가난>에서 ‘부자가 곧 신선’이라는 표현은 당대 신분제 사회가 자본제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넌지시 일깨운다. ‘가난이 죄’라는 말은 가난으로 인해 피폐해지는 삶을 적실하게 지적한 것이다. 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에 각각의 상황이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가난한 이에게는 위로를, 부유한 이에게는 경계의 말을 담아, 당대 사회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생각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신분에 따라 부귀가 결정되던 낡은 시대가 가고, 상업자본의 형성과 궤를 같이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직시한 시대의식의 발로이자 그 시적 형상화의 단면이라 할 것이다.

<돈>은 ‘천하 어디에서나 환영’을 받으며, ‘나라와 집안의 흥망’을 좌우하고, 항상 그대로가 아니라 ‘들어왔다 나갔다’ 하며, ‘사람을 죽이기도 살기리도 하는’ 돈의 위력과 속성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 저마다 ‘돈’ 얻기를 바라건만 그것을 구하거나 축적하기 어려우며, 뜻을 이루는 일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음을 노래하고 있다. 재화와 화폐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허다한 희비극이 연출되는 현실을 씩씩한 웃음과 함께 다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김삿갓의 시대의식과 그 시

적 형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화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19세기 중엽 사회경제적 국면에서 새롭게 부각된 교역의 활발과 상업의 융성에 말미암은 화폐경제의 발달이 작품의 거시적 배경이 되었을 것은 물론이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당대 사회현실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시화한 김삿갓의 시편들에는, 이렇듯 전통시대 사대부 한시 작품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소재적 다양성과 이에 수반되는 정서의 다양성으로 인해, 기존의 통속적 관념이나 가치의식이 파괴되면서 새로운 시적 형상들이 창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삿갓은 이와 같은 시적 소재의 확장으로부터 생활 현실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감성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단계로까지 사고방식과 가치의식의 저변을 넓혀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의 시편들은 김삿갓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사회현실을 직시·성찰한 시대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다채로운 형상들로 창출한 시적 지향의식의 저변에는, 경험적 진실성에 입각하여 일상의 생활감정에 충실한 시를 추구하는 가치의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모 역시 김삿갓 시의 특징이자 개성의 일면을 대변한다 할 것이다.

5. 김삿갓 시의 문학사의 의의와 위상

문학 혹은 문학행위란 역사적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자기표현이다. 그런데 이 ‘자기표현’의 행위나 내용이 객관적 진실성을 담고 있다고 평가될 경우, 그것은 비단 ‘자기-개인적 차원의 경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동시대-역사현실의 일반적 경험’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개연성을 얻게 된다. 거기에는 현실을 수렴·확산한 경험적 진실성이 내재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학이 개인의 상상과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면서도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과 공감을 얻게 되는 이유와

가치의 유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삿갓이라는 우리 문학사 최고의 기인(奇人) 가운데 한 사람을 상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아마도 ‘삿갓을 쓴 방랑시인’ 일 것이다. 그러나 김삿갓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과격시와 희작시의 대명사’ 또는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시인’ 등의 이미지 또한 떠올릴 것이다.

김삿갓은 우리 문학사가 낳은 귀재이자 19세기 중엽 조선 시단에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킨 문호이다. 그의 삶은 개인적 모순에서 사회적 모순으로 전이된 면이 강하며, 그가 남긴 시편들은 기존의 관념이나 가치를 깨뜨리면서 전혀 새로운 시적 형상을 통해 새로운 관념과 가치의식을 창출한 데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그렇기에 그를 우리 문학사의 여느 시인과 비교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전통적으로 시는 개인의 내면적 정서를 표출하는 통로로서 기능해 왔다. 그런 가운데 문치주의(文治主義) 기풍이 확립되고 관료사회가 도래하게 된 시기로부터는, 언어적 기능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하여 입신영달의 수단이나 통치의 수단 및 세계관을 정립하는 수단 등으로 그 기능을 확장시켜 왔다. 그러면서 시대마다 나름의 합당한 규범을 마련하고자 했다. 동아시아 한문문명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중세 이후 이러한 역할을 주로 한시를 통해 전개해 왔다.

이렇듯 한시는 대대로 상류 식자층만이 창작할 수 있었고 독자층 역시 지배계층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지녔다. 하지만 김삿갓의 한시는 우선 관심의 초점과 수용의 토대를 지배계층에 두기보다는 피지배계층에 두었다. 그의 작시(作詩) 행위는 일상을 살아가는 당대 민중의 희로애락을 노래한 것이면서, 그들과의 공감을 추구한 것이었다. 그런 만큼 이면적으로는 비판의 시선을 당대 지배계층에 돌리고 있었기에 그의 시가 한문으로 쓰여졌으며, 정통 한시 스타일에서 벗어나는 태생적 특징 또한 지니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김삿갓의 시를 두고 한문으로 쓰여졌기에 분명한 한계를 지녔다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불평 혹은 울분을 즉흥적으로 표현하여 당시 사회현실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일반화시키지 못했다고 폄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평가다.

떠돌이 시인의 전형처럼 인식되어 온 김삿갓의 삶의 역정 및 그가 남긴 시편들에는 조선후기 19세기의 변화하는 시대상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삿갓은 19세기 중엽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곤궁한 생활에 대한 연민과 애민의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사실적인 수법을 통해 진솔하게 노래했다. 또 봉건 권위주의에 맞서 기존의 고착화된 관념을 파괴하거나, 당대 현실에서 제기되는 불합리와 부조리에 내재된 폐단과 횡포를, 특유의 언어감각을 동반한 파격의 형식과 희작성의 내용을 결합하여 신랄하게 노래했다. 이와 함께 그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당대 사회현실에서 제기되는 세태와 풍정, 새롭게 대두되는 삶의 양식과 가치의식을 형상화함에 있어서, 양반 사대부 일반의 관조적 혹은 관념지향적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일상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삶의 모습들을 형상화하는 데 시적 지향의식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 면에서, 김삿갓은 소재영역의 확대나 주제의식의 깊이에 있어서, 전통시대는 물론 동시대 여느 작가보다도 개성적인 시세계를 구축했던 작가이다. 엄격하게 격식화된 종래의 한시 작법을 답습하지 않고, 파격적인 발상을 통해 당대를 살아가면서 그가 생각하고 느낀 바를 보다 자유롭게 표출함으로써, 종래의 시적 정서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였다. 기존의 통속적 관념이나 가치의식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시적 형상들을 창출하고 있는 그의 시편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 따라서 그는 단순히 한시 형식만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념과 가치 및 삶의 형식까지를 깨뜨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자체가 근대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세적 사유방식과 가치의식의 틀로부터 벗어나려는 당대 역사적 움직임에 상응하는 행동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이래로, 김삿갓의 시세계에 대한 연구는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

러나 파격적인 형식을 통한 회작시·풍자시로서의 성격을 조명하거나, 표현기법상의 특징과 결부된 이른바 언문풍월로서의 단면을 강조하는 데 치우친 감이 있다. 그렇기에 그의 시 전반을 관류하는 시적 지향의식 혹은 시정신에 대한 연구는 본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김삿갓의 시세계가 지닌 본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면모들을 살펴, 김삿갓이라는 인물과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심화하고, 그의 시가 우리 문학사에서 갖는 위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의 문학사적 위상을 보다 온당하게 재정립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삿갓의 시편들은 더없이 인간적이고 사실적이며 진솔하다. 이는 그가 역사 격동기의 생활시인으로서, 경험적 진실성이 우러나는 작품들을 통해 그만의 독특한 시세계를 일구어 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시화 대상에 대한 동화 혹은 이화의 정서 및 태도를 통해 삶의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시대의식에 입각하여 19세기 중엽 조선의 인간풍정을 노래한 시인이었다. 김삿갓이라는 인물이 초동급부들의 입에까지 오르내리고, 그의 시편들이 그가 생존·활동하던 당대 이후 계층을 초월하여 인구에 회자된 데에는, 이와 같은 시적 지향의식이 이른바 ‘김삿갓 시’로 일컬을 수 있는 그만의 특유한 개성을 창출한 데 있다. 김삿갓 시의 문학사적 의의와 위상은 요컨대 ‘역사 격동기 생활시인’이자 19세기 중엽 조선의 ‘인간풍정을 노래한 시인’으로서, 경험적 진실성이 우러나는 시들을 통해 중세적 사유방식과 가치의식의 틀로부터 벗어나 근대를 예비하는 새롭고도 개성적인 시적 형상을 창출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許筠, 「文說」, 『惺所覆瓿藁』 卷12 文部9

고연군, 「金笠과 中國 古典詩歌의 關聯研究」,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3.

곽미정, 「芭蕉와 金笠의 비교 연구」,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03.

김인숙, 「韓日文學의 比較研究 : 金笠과 松尾芭蕉의 詩世界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논문집』 제25집, 1992.

박영주, 「허균 시에 투영된 사유와 정서의 특질」, 『고시가연구』 1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185~186면.

박혜숙, 「金笠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4, 30면.

서현도, 「김삿갓의 삶과 시에 나타난 삿갓의 상징적 의미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3.

영월군, 『김삿갓의 유산』, 1992.

윤은근, 「金笠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79.

이건호, 「김병연 시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4, 11면.

이응수, 『金笠詩集』, 학예사, 1939(초판) / 한성도서, 1941(대증보판).

이응수, 『풍자시인 김삿갓』, 국립출판사, 1956.

이창식, 『김삿갓문학의 풍류와 야유』, 태학사, 2011.

정대구, 「김삿갓 시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1989.

정대구, 『김삿갓 연구』, 문학아카데미, 1990, 149면.

하정승, 「김삿갓 시에 나타난 悲慨와 飄逸의 정신」, 『동방한문학』 32집, 동방한문학회, 2007.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한국사 특강』, 서울대출판부, 1997, 203면.

<Abstract>

A Study on the phases of the times and poetic consciousness in Kim Sat-gat's Poetry

Park, Young-ju

This paper studied the phases of the times and poetic consciousness in Joseon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projected on the poetic works of Kim Byeong-Yeon, who has been commonly called Kim Sat-gat. The reason why his poetic works have been buzzed-about is, among others, that he destroyed the form of Sino-Korean poetry that regards forms and norms important. In addition, he combined contents involving satire and humor with such exceptional forms to create an inventive world.

Kim Sat-gat's inventive poetic world stands out in that his poems sang joys and sorrows in people's lives at that time, the irrationality of feudal authoritarianism, the destruction of common ideas or value consciousness, and wills that long for new times. His poetic works are realistic and truthful. By freely expressing what he thought and felt through exceptional ideas and acts of writing poems, he pursued liberation from conventional poetic emotions. This poetic consciousness can be said to be a result corresponding to the historical movement at that time to get out of medieval thinking ways and value consciousness.

Key words : Kim Sat-gat, phases of the times, poetic consciousness, satire, humor, irrationality, authoritarianism, value consciousness

투고일 : 2015년 1월 15일, 심사 : 1월 19일~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

